

communicated with each other, and he intended to embody the Nichiren monk's spirit through the picture of Nisshin.

Key Words

Nisshin, Nichiren, Kano Masanobu, Honpou-ji Temple, Tosa Mistunobu

일본 전통의 불교식 葬禮文化와 그 변화 양상*

윤기엽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원

- I. 서론
- II. 불교식 장례문화의 형성
- III. 葬禮의 절차와 내용
- IV. 祭禮에 의한 조상공양
- V. 결론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한국(HK)사업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수행하는 H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과제번호 KRF-2008-361-B00006)

투고일자 2011.3.20 | 심사일자 2011.4.9 | 게재확정일자 2011.4.13

요약문

본고는 일본의 전통적 장례문화가 형성된 과정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변화의 양상을 고찰한 글이다. 일본에서 불교식의 葬禮와 祭禮가 시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장례와 제례의 절차, 내용 등을 살펴본 것이다. 일본의 전통 장례문화는 중세 때 나타난 民衆佛敎와 조상숭배 신앙이 결합하여 형성되었고, 이것이 근대의 檀家制度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고유의 불교 형태인 葬儀佛敎도 형성되었다.

일본의 전통 장례문화는 민간신앙과 외래종교인 불교가 결합한 것으로서 이것을 크게 葬禮와 祭禮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일본에서의 장례와 제례는 불교의례에 의거해 죽은 사람의 死靈을 조상신으로 승화시켜 가는 과정이었다. 장례는 臨終으로 시작하여 유골의 매장 의식까지, 그리고 제례는 初7일 범요부터 33회기의 의례와 연중행사인 오봉(お盆), 히강(彼岸)의 조상공양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전통 장례문화는 아직도 일본에서는 지켜지고 있지만 사회변동과 더불어 많은 내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 변화의 양상은 의례에 있

어서 종교적 색채가 약화되고, 또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墓制는 火葬이 일반화되어 가족 納骨墓로 획일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식 장례와 전혀 관련이 없는 無宗敎葬, 直葬, 그리고 散骨, 樹木葬까지 등장하여 앞으로의 장례문화에 더욱 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제어

死靈, 조상숭배, 민중불교, 이에(家), 葬儀佛敎, 화장, 장례, 제례

I. 서론

수많은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본인은 태어날 때 神社에 가 참배하고, 결혼은 교회에서 기독교식 결혼을 올리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러서는 불교사찰에서 佛敎式 장례를 치른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통과의례(passage rites)인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르는 경우가 95%에 이르고 있다. 결혼식은 기독교식이 62%, 신도식이 33% 정도를 차지하지만, 장례식은 거의 모든 일본인이 불교식으로 치른다는 말이 성립된다. 생전에 故人의 종교와 상관없이 장례식만큼은 불교식으로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불교는 분명 외래종교이지만, 인생의례 중에서 가장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그 절차가 복잡한 장례를 담당해 오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의례에 해당하는 장례를 불교가 담당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예로부터 祖上崇拜 사상에 기초하여 靈魂不滅의 신앙을 갖고 살아온 일본 민중이 불교식의 장례를 행하는 데에는 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

다. 그런가 하면, 葬禮나 祭祀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던 불교가 일본민중의 장례의식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불교로 변화되기도 하였다. 일본불교만의 독특한 특징을 갖는 葬儀佛敎가 성립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장례문화는 불교와 벨레야 벨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일본의 장례문화는 불교의 영향력만이 아니라, 일본 고유의 영혼관이나 조상숭배와 같은 민간신앙을 내포하고 있어서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 장례문화에 대한 이해는 일본인의 生死觀이나 來世觀뿐만 아니라 그들의 통과례, 연중행사, 종교정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 분명하다.¹⁾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전통적인 일본 장례문화에 대해 본고에서는 그것의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그리고 형성 배경 등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보수성이 강한 장례문화도 여러 부문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글에서는 우선 일본의 전통적인 장례문화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일본의 장례문화도 사회변화의 물결을 타고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장례문화의 기본적인 틀은 아직도 지탱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의 변형된 장례문화 또한 전통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변모되어 가는 장례

1) 일본 장례문화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 다음의 글이 있다. 최길성, 「일본장례의 비교민속학적 고찰」, 『비교민속학』5(서울: 비교민속학회, 1989); 김시덕, 「일본의 화장, 불교식 장례」, 『불교학연구』16(서울: 불교학연구회, 2007), pp.199-204.; 노성환, 「日本葬禮의 現場」, 『장례문화의 이해』(서울: 경인문화사, 2008); 김후련, 「민속신앙과 불교가 습합된 일본의 장례문화」, 『세계의 장례문화』(서울: 한국의국외대학교 출판부, 2010)

의 절차나 방법, 의례의 내용 등이 미래의 일본 장례문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장례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징후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 나아갈 것이다.

본고의 본문에서는 먼저, 일본 민중의 전통적인 장례문화기 형성된 기원을 개관하고자 한다. 일본만의 불교 형태인 葬儀佛敎에 의거해 장례문화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장례문화의 핵심에 해당하는 臨終으로부터 시신을 埋葬하기까지의 일련의 의례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최근의 변화된 내용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다만 일본에서는 近代에 들어와 葬法이 土葬에서 火葬으로 바뀌어 현재는 화장이 거의 일반화된 관계로 화장에 따른 장례문화를 고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물론 여기에도 지역과 불교종파에 따라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의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죽은 사람의 장례가 모두 완료된 후 그 영혼이 後孫들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 공양되는 제사의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祭禮는 장례와 마찬가지로 불교의 영향 아래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의 절차와 유래 그리고 변형된 모습은 알아보도록 한다.

본고에서 일본의 장례와 제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모두 함께 다루고자 한 의도는 불교에 의거하고 있는 일본 장례문화의 전반을 조명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²⁾ 이 글을 통해 일본 장례문화의 각 분야가 보다

2) 국내에서 일본 장례문화 전반을 소개한 것으로 다음의 글을 들 수 있다. 김후련, 「민속

심층적으로 연구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II. 불교식 장례문화의 형성

1. 祖上崇拜와 民衆佛敎

일본 葬禮文化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佛敎式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의 臨終으로부터 시작되는 장례 절차, 그리고 이후 자손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선조제사가 모두 불교의식에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 불교가 死者의례와 조상숭배의 종교적 기능을 담당하며³⁾ 일본문화의 근간을 형성한 것은 近世 에도시대(江戶時代, 1603-1868)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6세기 중엽에 전래된 불교가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죽은 시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것은 中世 카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92-1336)의 新佛敎의 출현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⁴⁾ 카마쿠라 시대에는 호넨(法然, 1133-1212), 신란(親鸞, 1173-

신앙과 불교가 습합된 일본의 장례문화, 『세계의 장례문화』(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3) 許南麟, 「祈禱와 葬禮式 -日本 佛敎文化의 두 중심축-」, 『일본사상』2(서울: 한국일본사상학회, 2002), p.104.

4) 일본에서 불교가 장례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621년 쇼도쿠 태자(聖德太子)의 장례에서 찾을 수 있고, 이후 703년의 지토(持統)천황, 880년 세와(清和)천황의 장례도 불교식 장례였다. 불교는 이미 7-8세기에 황실의 장례에 깊이 관여하였다. 불교가 민간에 확산되면서 민간의 장례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나라시대(710-794)라고 한다. 김시

1262), 니치렌(日蓮, 1222-1282), 잇켄(一遍, 1239-1289), 에이사이(榮西, 1141-1215), 도겐(道元, 1200-1253) 등과 같은 고승들이 출현하며⁵⁾ 일본불교가 귀족불교의 성향에서 벗어나 민중에 뿌리내리는 민중불교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본 宗派佛敎의 원형을 이룬 카마쿠라 신불교는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93)의 귀족불교에 반발하며 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피폐해진 민중의 삶을 구원하는 민중구제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신불교는 귀족들만이 가능했던 佛經 연구나 사원에 대한 기부 없이도 무사, 농민, 상공인, 여성도 일상의 생활 속에서 成佛이 가능하다고 설교했다. 당시 신불교 각 宗派는 불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던 民間信仰, 즉 靈魂觀과 그에 따른 祖上崇拜의 관념을 수용하게 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인은 원래 삼라만상에 靈魂이 깃들어있다는 애니미즘(靈魂信仰, 萬有精靈說)을 기본으로 하는 신앙체계를 갖고 있다. 영혼은 바로 神으로서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 일본신앙의 큰 특

징이다.⁶⁾ 일본에는 '800만의 神(八百萬の神)'이 존재한다고 하는 말은 그 단적인 표현이다. 사람 역시 영혼을 갖고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生靈이 있고, 죽은 사람에게는 死靈이 있다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비록 肉體는 썩지만, 죽은 사체에서는 사령이 분리된다. 이 사령은 불안정하고 난폭한 영혼으로서 가족과 근친자들의 주위를 맴돌면서 해를 끼치는 두려운 존재로 있게 된다. 하지만 子孫이 장시간에 걸쳐서 선조공양(제사)을 올리게 되면 개성을 갖고 있던 사령은 완전히 淨化되어 자손을 지켜주는 祖上神(祖靈, 祖先様)이 된다. 그런데 후손의 공양을 받아 승화된 조상신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산으로 가 봄이면 후손이 사는 마을로 내려와 논의 신, 밭의 신이 되어 농사를 돕고 가을 수확이 끝나면 다시 산으로 돌아간다.⁷⁾ 조상신은 곧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후손의 행복이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것이다(祖靈信仰). 반면, 생전에 원한을 품고 죽었거나 자손이 끊겨 공양을 받지 못한 사령 곧 怨靈은 조상신이 되지 못한 채, 유령으로 떠돌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한 존재로 남아 전염병이나 기근, 천재지변을 일으킨다고 믿었다(怨靈信仰).⁸⁾ 이러한 일본인의 영혼관과 사람의 영혼을 神으로 승화시켜 신앙의 대상으로 삼

덕, 「일본의 화장, 불교식 장례」, 『불교학연구』16(서울: 불교학연구회, 2007), pp.199-204.

5) 호넨은 淨土宗의 개조로 念佛을 행하는 것만으로 아미타불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專修念佛을 설교했다. 신란은 淨土眞宗의 개조로 호넨의 제자이기도 했다. 아미타불에 귀의한다는 한 번의 염불만으로도 구제되고, 아미타불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고 주장했고, 非僧非俗을 표방하였다. 잇켄은 時宗의 개조로 염불부적을 나누어주고, 염불춤(오도리念佛)을 추면서 민중들에게 염불을 전파한 行脚僧이었다. 니치렌은 日蓮宗의 개조로 정토교를 배격하고, 法華經을 정법으로 간주하며 범화경에 귀의한다는 '나무묘호련게교(南無妙法蓮華經)'를 암송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에이사이는 宋으로부터 公案 중심의 臨濟禪을 전하고 臨濟宗을 열었다(1191). 도겐은 宋으로부터 曹洞禪(默照禪)을 전한 고승으로 오로지 坐禪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것을 주창하였다.

6) 만물에 깃들어 있는 神을 대접하는 행사가 일본의 각종 마츠리(祭り)이다.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믿음과 그 신을 받드는 마츠리 및 연중행사가 일본인의 사상과 행동을 지배하는 행동규범이 되었다. 한국어어일문학회, 『게다도 짝이 있다』(서울: 글로세움, 2010), P.205.

7) 죽은 사람의 靈魂은 산으로 간다는 믿음은 地藏菩薩 신앙으로 발전한다. 즉 영혼이 있는 영험한 산에는 반드시 증생을 지옥으로부터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지장보살이 있다는 신앙이다. 일본에서 지장보살이 민간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은 12세기 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8) 怨靈은 공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민이나 국민들에게 신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는 조상숭배는 佛敎와 결합되어 그 의미가 부여되고, 다양한 형식과 절차를 갖는 복잡한 의례로 발전하게 된다.⁹⁾

민중의 조상숭배 의식은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의 南北朝 혼란기(1338-1392) 이후 농민의 자치조직인 소(惣)로 형성된 자치촌락(惣村, 소촌)이 각지에서 출현하는 것과 함께¹⁰⁾ 이에(家) 의식¹¹⁾을 낳으면서 한층 강화되어 간다.¹²⁾ 막부정권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자유 농민의 자치촌락인 소촌(惣村)이 郷으로 확대되어 가며 郷村制가 성립되고, 또 소촌의 기초 단위가 된 이에(家)가 조상제사를 발달시켜 가며 여기에 민중불교가 결합하면서 불교의례에 따른 葬禮와 선조제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5세기 정부터는 전국 각지의 촌락에서 佛敎式의 장례와 제례가 그 원형을 드러내게 된다. 일본 고유의 불교 형태인 葬儀佛敎¹³⁾가 나타난 것이다. 이제 승려는 마을

의 사원에 정주하면서 일반민의 장례식과 제례를 주관하고, 묘지를 관리하는 일이 주요 업무가 되었다. 불교는 장례와 제사를 통해 마을의 민중과 더욱 긴밀히 접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 近世寺院의 대부분은 오닌의 난(應仁亂, 1467-1477)¹⁴⁾이 있던 1467년부터 에도막부의 諸宗寺院法度¹⁵⁾가 제정된 1665년까지 약 200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¹⁶⁾ 이 시기는 곧 전국 각지의 촌락을 순회하며 포교활동을 벌이던 승려가 촌락공동체에 定住하며 종교자로서 불교의례에 의한 촌락민의 장례와 제례를 행하던 때이기도 했다.¹⁷⁾ 장례와 조상제사를 매개로 하여 촌민(檀家)과 불교(寺院)가 결합된 이러한 자생적인 흐름을 정치권력이 개입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아간 것은 에도(江戸) 정권이었다.

9) 靈肉二元論에 기초한 祖靈信仰은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國男)가 『先祖の話』(1945)에서 주장하며 민속학의 정설이 됐을 뿐, 이것이 일본 고유의 민간신앙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岩田重則, 『お墓の誕生』(東京: 岩波書店, 2009), pp.54-109.

10) 농민들이 손(惣)을 만들어 촌락을 자주적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은 신진지역에서는 이미 카마쿠라 시대(鎌倉時代)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촌(惣村)은 무로마치 시대에 계속되는 전란으로 농민들의 단결이 촉진되면 더욱 발전하였고, 이것이 郷으로 확대되며 郷村制가 성립하였다.

11) 이에(家)는 단순히 가족이나 집안이 아니고, 사회활동의 한 단위로서 家業과 家紋을 갖고, 家産(家督)을 소유하며 한 대표자에 의해 통솔된다. 그 구성원들은 이에의 永續을 최대 목표로 삼는다. 이에(家) 의식은 14~16세기에 걸쳐 성립된 것으로 추정한다. 아마 도시마로(阿滿利麿) 저·정형 옮김, 『일본인은 왜 종교가 없다고 하는가』(서울: 예문서원, 2001), p.70.; 許南麟, 「祈禱와 葬禮式 - 日本 佛敎文化的 두 중심축 -」, 『日本思想』2(서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2), p.109.

12) 소촌에서의 권리 의무는 이에(家) 단위로 주어지고, 그것이 세습되어 조상숭배 의식이 강화된 것이다. 井上治代 저, 이성환·이미에 옮김, 『현대 일본인의 삶과 죽음』(대구: 중문출판사, 2004), p.73.

13) 葬儀佛敎를 일본식으로는 葬式佛敎라고 한다. 대개 승려가 장례에 종사하여 장례식

의 예법으로 형식화된 일본불교의 현상을 비난하는 표현의 용어라고 한다.

14) 戰國時代(1477-1573)의 서막이 된 戰亂으로 호소카와 카즈모토(細川勝元)의 동군 24國과 아마나 소젠(山名宗全)의 서군 20國이 교토(京都)를 중심으로 싸웠다. 이 전란으로 교토는 황폐해지고, 막부의 권위는 실추되어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하고, 장원제의 붕괴가 촉진되며 전국 다이묘(戰國大名)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15)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의 종교통제 정책으로 총 15개조의 항목으로 구성된 법이다. 사원 本末制度和 檀家制度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막부에 의한 전면적인 신앙통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朴奎泰, 「일본근세의 종교와 국가권력 - 도쿠가와 막부의 사원법도를 중심으로 -」, 『儒敎文化研究』4(서울: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2002), p.196-208.; 圭室文雄, 『江戸幕府の宗敎統制』(東京: 論評社, 1971)

16) 圭室諦成, 『葬式佛敎』(東京: 大法輪閣, 1964), p.241.

17) 村上興匡, 「葬儀の變遷と先祖供養」, 『葬送のかたち』(東京: 佼成出版社, 2007), pp.32-33.

2. 檀家制度와 葬儀佛敎

에도막부(江戸幕府)는 16세기 중엽 일본에 건너온 포르투갈 예수회 신부들의 활동으로 전과되기 시작한 기독교를¹⁸⁾ 사회체제를 동요시키는 종교로 단정하고 정책적으로 탄압을 가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바테령(伴天連, 기독교도) 추방문(1587)에 이어 1613년 기독교를 邪敎로 간주하고 추방하는 포고문을 반포하였다. 막부정권은 기독교 금지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¹⁹⁾ 당시 각 촌락에 정주한 승려들이 그곳 村民들의 장례와 제사를 담당하고, 또 촌민들은 사원을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양자의 상호부조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지역의 주민을 이에(家) 단위로 사원에 등록시키고, 그 사원에게 지역 주민의 종교신분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인 寺講制度를 실시했다. 주민들은 자신이 소속된 사원(檀那寺)으로부터 기독교 신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매년 확인받았고, 그 사원이 신도(檀那·檀家)에게 발급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신분증명서인 寺講證文을 받아서 官에 보고했던 것이다. 사청증문은 지역 주민들이 사회생활을 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문서로서 주민들은 이 증명서에 근

거하여 호적대장에 해당하는 宗門人別帳(宗旨人別帳)에 등재되어 그들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宗門改制度).²⁰⁾

정부로부터 주민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는 寺講의 권리를 위임받은 사원은 자신의 사원에 속한 檀家の 장례나 종교의례를 독점적으로 담당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막부정권의 지배 아래서 모든 지역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어느 한 불교사원에 소속되어 불교신도(檀那)가 되어야 했고, 또 자기 집안의 葬禮나 追善供養, 祖上崇拜 의례 등은 소속된 사원인 檀那寺에서 지내게 되었다.²¹⁾ 신도는 사원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경제적 토대가 되고, 사원은 신도의 장례나 조상제사, 종교의례 등을 전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8)의 檀家制度 또는 寺檀制度로서 17세기 후반 경에는 전국에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이 제도를 통해 불교는 일반민의 生死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그것은 또 국가의 한 운영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되었다.²²⁾ 이후 일본불교는 불교 본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사자의

18) 1549년 카톨릭 예수회의 신부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가고시마(鹿兒島)에 도착해 포교를 시작했고,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는 1569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다.

19) 도쿠가와 막부의 기독교 금지정책은 쇄국정책의 일환으로 지속되어 메이지정부(明治政府) 초인 1873년에 공식적으로 철폐되었다. 도쿠가와 정권이 기독교를 일관되게 금지하게 된 데에는 1638년 기독교도의 시마바라(島原) 농민반란이 중용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한다. 박규태, 「일본의 종교와 종교정책」, 『종교연구』46(서울: 한국종교학회, 2007), pp.153-154.

20) 절에서 발급한 사청증문에 근거해 마을의 役人(행정관리자)이 작성한 宗門人別帳에는 가족의 이름, 친족관계, 나이, 생일, 결혼, 사망, 진출, 전입 등이 기재되어 오늘날의 호적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것이 藩정부에 보고되면 다시 번정부는 관할 지역에 기독교인이 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인구통계와 함께 幕府에 제출하게 되었다. 許南麟, 「일본 근세초기에 있어서의 반기독교 정책과 寺講制度의 성립」, 『日本歴史研究』(서울: 日本歴史研究會, 2000), p.94.

21) 檀那寺와 檀那의 관계가 일단 형성되면 이타이나 교체가 쉽게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대를 뛰어넘는 고착적 종속관계가 되어 거의 반영구적으로 유지되었다. 단나사는 단나에게 의례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고, 기부금, 협찬, 노동력 동원 등 많은 부담을 강요하였다. 許南麟, 「祈禱와 葬禮式 - 日本 佛敎文化의 두 중심축 -」, 『일본사상』2(서울: 한국일본사상학회, 2002), p.106.

22) 이찬수, 『일본정신』(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9), p.91.

례를 주된 업무로 삼게 되어 葬儀(葬式)佛敎가 확고히 정착 되어갔다. 이제 사원 승려의 본업은 수행이나 중생 교화가 아니고 자신의 절에 소속된 단가의 장례를 주관하고, 기일에 맞추어 제례를 주재하는 일이었다. 또 단가 신도들은 집안의 장례나 제사 외에도 佛忌, 正月, 오봉(お盆), 히강(彼岸) 등에 사원을 찾아 보시하면서 경제적 후원자가 되었다. 장례와 제례를 중심으로 하여 사원과 단가의 관계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사원은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 단가제도를 통해 일본불교 고유의 형태인 장의불교가 더욱 견고히 유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단가제도를 통해 일정한 단가와 신도를 확보한 사원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보장받고, 또 그 사원이 세습되면서 불교는 점차 종교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승려는 장례식이나 제사, 묘지 관리 등과 같은 장례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며 그 수입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富를 축적하는 등 세속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하기도 했다. 장의불교에는 이러한 일본불교 현상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²³⁾

다음 장에서는 중세 카마쿠라 시대부터 에도시대를 거치면서 불교식으로 정형화되어 전승되고 있는 장례와 제사의례를 살펴보고, 그것이 최근 어떠한 형태로 변형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도록 한다.

23) 일본 장의불교에서 스님은 장례 종사, 묘소 경영, 장례의식 주최, 檀家 제도에 안주하며 중생구제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마쓰오 겐지 지음, 김호성 옮김, 『인물로 보는 불교사』(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p.30.

III. 葬禮의 절차와 내용

일본에서는 죽은 사람을 호토케(佛, ほとけ)²⁴⁾라고 말하는 풍습이 있다. 이 말은 ‘사람이 죽으면 부처가 된다’는 의미로서 佛敎가 사람의 죽음과 그것에 수반되는 儀式에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일반적인 장례 절차는 시종일관 來世의 成佛과 極樂往生을 기원하는 의례이기도 하다.

1. 臨終에서 入棺까지²⁵⁾

일본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 장례는 집에서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간혹 그것이 절에서 시행되기도 했다. 설령 자신의 집이 아닌 병원과 같은 집 밖에서 죽는 경우에도 시신은 집으로 옮겨져 장례를 치르는 것이 관례였다. 이것은 일본에서 장례 의식이 거행되는 공간은 故人이 거주했던 집이고, 또 한국처럼 사람이 집 밖에서 죽으면(客死)²⁶⁾ 그 시신을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는 풍습도 없었음을 말해

24) 본래 覺者를 의미하는 佛(호토케)을 일본에서는 죽은 사람을 의미하게 된 연유는 葬禮와 祭禮 등이 불교 승려의 주재 하에 佛敎式으로 시행되는 일이 보편화되었기 때문 일 것이다. 죽은 시신을 호토케(佛)라 하기도 한다. 아마 도시마로(阿滿利磨) 저·정형 옮김, 『일본인은 왜 종교가 없다고 하는가』(서울: 예문서원, 2001), pp.76-78. 참조

25) 현재 일본에서의 일반인 장례 현장의 모습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 하였다. 최길성, 「일본장례의 비교민속학적 고찰」, 『비교민속학』5(서울: 비교민속학회, 1989); 노성환, 「日本葬禮의 現場」, 『장례문화의 이해』(서울: 경인문화사, 2008)

26) 客死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客地에서는 죽는 것을 말하지만 집 밖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사람이 병원에서 죽는 것도 객사로 간주하여 집에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病院葬)를 하는 관습

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병원에서 사망하는 예가 늘어나고,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불편함을 피하여 절이나 장례식장(葬祭場)을 이용하는 예가 점차 늘어났다. 특히 최근에는 전문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자택장례는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²⁷⁾ 예로부터 장례를 거행하는 공간이었던 집이 이제는 장례식장으로 옮겨간 것이다.

사람의 臨終이 다가오면 먼저 가족이나 친지들은 곁에서 혹은 지붕이나 우물을 향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것을 ‘魂 부르기’(다마요비)라고 한다. 魂 부르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呪術의인 행위로서²⁸⁾ 이것은 현재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다.

사람의 죽음이 확인되면, 주위의 가족은 가제에 물을 축여서 죽은 사람의 입술을 적어주는데 이것을 ‘임종의 물’(末期の水)이라고 한다. 이것은 死者가 저승에 갈 때 물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하는 의식으로 이승 사람들과의 마지막 이별의식이기도 했다. 다음은 湯灌(유칸)으로 시신을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게 된다. 일본에서는 죽음의 死穢를 不淨한 것으로 여기는 습속 때문에 탕관 때 사용한 물은 마루 밑이나 묘지에 버렸고, 또 참여한 사람은 냇가에 나

가 손을 씻거나 소금으로 몸을 정갈히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물 대신 알코올을 이용하여 가제 등으로 닦는 것으로 간략화 되었고, 전통적으로 가족들이 하던 것을 지금은 대부분 장의사에 의존하고 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은 양손을 합장한 형태로 가슴에 모으고, 이불을 깐 위에 베개를 북쪽으로(北枕,기타마쿠라) 하여 높히고 하얀 천을 덮는다.²⁹⁾ 北枕은 석가모니가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入滅한 모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고 시신 앞에 병풍을 칠 때는 고인이 죽음의 세계로 떠난 것을 상징하여 병풍은 거꾸로 세운다. 그리고 병풍 밖에는 상을 놓고 임시 祭壇인 ‘枕飾’(마쿠라카자리)를 차린다. 枕飾의 형식은 상(床)에 흰 포를 두르고, 작은 꽃병에 꽃 1송이, 향 1개, 양초 1자루, 밥 1공기, 물, 경단, 소금, 된장 등을 올린다. 이때 고인이 생전에 사용했던 식기에 수북이 담은 밥을 ‘枕飯’(마쿠라메시) 또는 ‘枕團子’(마쿠라단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極樂淨土로 떠나기 전에 고인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전통적인 장례에서 쌀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³⁰⁾ 靈力이 깃들어 있어 靈魂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枕飯은 보통 出棺과 함께 묘지까지 가져가 밥을 사방에 뿌려 餓鬼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악령의 근접을 막았다고 한다.

이렇게 시신이 안치되면, 이전부터 조상을 모시고 있는 사원(檀那寺)의 승려를 모시고 고인의 머리맡에서 讀經하는 枕經(마쿠라교)

이 생겨났다.
27) 현재 일본인의 병원에서의 사망율은 80%이상이다. 장례식장에서의 장례가 60%이상, 자택에서의 장례는 10%가 채 안된다고 한다.
28) 주술적 행위인 혼 부르기는 지방마다 각기 달라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옷을 흔들거나 대나무 통에 쌀을 넣어 꺾전에 흔들기도 하고, 또는 죽은 사람이 사용하던 그릇을 두드리거나 뒷박을 두들기기도 한다. 김후련, 「민속신앙과 불교가 습합된 일본의 장례문화」, 『세계의 장례문화』(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p. 70.

29) 故人의 시신을 집에 안치할 경우에는 佛壇이나 神棚이 있는 방에 모시게 되어있다.
30) 쌀은 사자와 생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했고, 양자의 이별에도 필요했다고 한다. 新谷尙紀, 「일본의 죽음과 장송의 민속」, 『종교와 문화』14(서울: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08), p. 61.

의식을 행한다. 원래 침경은 臨終 때 고인의 머리맡에서 하는 의식이지만, 요즘은 시신을 안치한 후에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이전과는 달리 집보다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침경의 순서가 시신 안치 후로 미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침경 후에는 시신을 入棺하기 위해 殮을 하게 된다.

일본의 전통적인 염에서는 복장이 승려의 여행 복장과 유사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시신의 옷을 다 벗긴 다음 흰 두루마기 같은 옷(壽衣)을 입히고,³¹⁾ 팔에는 염주를 걸어주고, 손에는 흰 장갑(手匣)과 발에 흰 버선(脚絆)을 신기고, 보시주머니에는 실, 가위, 바늘, 동전, 쌀,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 등을 넣고, 췌신에 지팡이를 들도록 한다. 이러한 복장은 사람이 죽으면 부처(佛, 호도케)가 된다는 불교의 死後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염을 한 시신 위에 이불을 덮고, 얼굴을 흰 천으로 가리게 되면 염은 모두 끝난다. 염은 보통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하였지만, 요즘은 장의사가 맡아서 하는 경우도 많다. 枕飾이 마련되고, 염이 끝나면 고인의 유족은 가까운 친지들의 조문을 받게 된다.

시신을 入棺하기 전에 故人은 부처의 제자가 되었다는 표시로 승려로부터 戒名(法名, 法號)을 받게 된다.³²⁾ 고인의 死後出家를 의미

31) 일본의 전통 수의는 고소테(小袖)나 가타비라였지만, 현재는 걸이나 안을 흰 감으로 지은 옷이나 家紋을 새긴 옷, 고인이 애용했던 잠옷이나 욕의를 입힌다고 한다. 아이쿠라 하루타케 지음, 허인순 외 옮김, 『일본의 연중행사와 관습 120가지 이야기』(서울: 어문학사, 2010), pp.169-170.

32) 부처님의 제자임을 상징하는 계명을 붙이는 방법은 종파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院號, 道號, 法號(戒名), 位號 순으로 붙인다. 禪宗의 경우 도호, 법호, 위호의 6문자를 기본으로 하고 망자의 연령에 따라 법호, 위호의 4글자만 기록한다. 정토진종에서는 戒名을 法名이라 하며 남자는 釋○○, 여자는 釋尼○○로 이루어지고

한다. 이 계명의 관습은 불교국가 중에서도 일본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려에게서 받은 고인의 계명은 位牌에 적게 된다. 장례 때 사용하는 위패는 칠을 하지 않은 목재에 먹으로 계명을 쓴 것이다. 장례 후에도 고인의 계명이 적힌 위패는 집의 佛壇에 안치해 두고 아침 저녁이나 기일, 오본(お盆), 히강(彼岸) 때 선조공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³³⁾

염을 마친 시신을 棺 안에 넣는 入棺式은 소속 사원(檀那寺)의 승려가 주관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승려는 유족들에게 입관의 시간이나 절차 등을 지시한다. 입관은 먼저 요를 깬 관 안에 염한 시신을 반듯이 눕히고, 그 위에 이불을 덮는다. 이때 관 안에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 즉 안경, 틀니, 빗 등을 함께 넣어주기도 한다. 관 뚜껑을 닫고, 관 위에 銘旌을 덮고 병풍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입관식은 끝난다. 그런데 시신을 염하는 일과 입관식을 구분지어서 염이 끝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입관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입관식 때 시신을 염하여 바로 관에 안치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장의사가 시신을 염할 경우에는 가족들에 의해 진행되는 입관식은 염과 분리되어 시행되고, 가족이 직접 염을 할 경우에는 입관식

생전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넣게 된다. 마쓰오 겐지 지음, 김호성 옮김, 『인물로 보는 불교사』(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pp.24-27. 계명은 절에 기부한 금액, 신앙심 정도, 생전의 지위 신분 등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최근 적지 않은 戒名料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33) 位牌는 유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상의 魂魄이 머무는 곳이다. 일본의 장례나 선조공양에서 위패를 모시는 것은 불교와 유교가 융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위패가 서민에게 보급된 것은 에도시대이고, 서민은 2-3대, 귀족 계급은 7대, 천자는 33대에 걸쳐 모신다. 김후련, 「민속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일본의 장례문화」, 『세계의 장례문화』(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p.68.

때 옆을 하여 입관하는 듯하다. 어떤 경우든지 지금도 입관식은 거의 가족들에 의해 거행된다고 한다.

장례를 주관하는 승려는 입관식이 진행될 때 시신을 향해 염불을 하고, 또 입관식이 끝난 후에는 임시 祭壇을 향해 經文을 읽지만, 옆이나 입관 작업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장의에 관여하는 血緣的 관계자(가족, 친족)의 임무와 無緣的 관계자(승려)³⁴⁾의 임무가 엄격히 분리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최근에는 무연적 관계자에 해당하는 장의업자의 일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 관계에 있는 이웃들의 장례 참여가 줄어들면서 나타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신을 옆에서 입관을 끝내게 되면 그날 밤 유족과 가까운 친지들은 함께 밤을 새는 通夜(츠야)를 한다.

2. 通夜(츠야)

본래 通夜는 사망 당일에 시신을 그대로 이불로 덮어둔 상태에서 유족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함께 하룻밤을 새우는 것이었다. 야생동물로부터 시신을 지키고, 밤이 되어 나쁜 魂靈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한 土俗의 관습이었다.³⁵⁾ 通夜는 보통 장례식(고별식) 前夜에

고인의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葬禮式(告別式)을 거행할 장소로 관을 옮겨 제단에 안치하고, 유족과 가까운 친척 그리고 일반 조문객이 함께 밤샘을 한다. 시신을 입관한 후 장례식 전날 밤에, 장례식이 있게 될 장소에서 하게 된 것이다.³⁶⁾

통야는 지역마다 그 시간이 일정치 않아 하루 또는 이틀을 하기도 한다. 이틀을 하는 경우, 고인이 사망한 당일에는 가까운 친척만이 모여서 하는 임시 통야(假通夜)가 있고, 다음 날에 일반 조문객이 참여하는 本通夜가 있다.³⁷⁾ 사망한 다음 날의 통야는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친척이나 일반 조문객을 배려하여 생겨났다고 한다.

통야에 유족들은 祭壇 앞에 향불과 촛불을 피워놓고 친척이나 고인과 가깝게 지냈던 조문객을 맞고, 승려를 모시고 讀經을 듣는다. 그리고 조문 온 손님들에게 술과 식사를 접대하는 通夜접대를 한다. 하지만 근래의 통야는 매우 간소화 되어 유족들만 밤을 새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시간도 저녁 2~3시간(저녁 7~9시 전후)으로 끝나는 반절 통야(半通夜)가 많다. 현재 통야의 목적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것이 매우 간소화 되면서 이전의 유족과 가까운 친족들만의 통야로 회귀하였다고 볼 수 있다.

34) 血緣的 관계자는 사자와 같은 자리에서 湯灌, 入棺, 通夜 등의 일을 분담하고 無緣的 관계자인 승려는 전문적 직능자로 염불, 독경, 설법 등을 맡는다. 그리고 地緣的 관계에 있는 이웃은 死者葬送, 장례 물품의 준비, 식사 제공, 매장 등의 임무를 분담한다. 新谷尙紀, 「일본의 죽음과 장송의 민속」, 『종교와 문화』14(서울: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08), p.61.

35) 통야의 원초적 모습은 유족이 생활 공간과 떨어진 곳에서 喪屋을 짓고 음식을 따로 지어먹으면서 사자와 함께 잠을 자는 것이었다. 현재에도 이러한 유습이 효고현(兵庫縣) 북부에서 돗토리현(鳥取縣) 동부에 걸쳐 남아있다고 한다. 김후련, 「민속신앙과

불교가 습합된 일본의 장례문화」, 『세계의 장례문화』(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p.73.

36) 시신이 집으로 옮겨져 옆과 입관을 하더라도 장례를 장례식장이나 절에서 하게 되면 그곳에서 통야를 하게 된다. 자택장례가 드문 요즘에는 집에서 통야를 하는 경우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37) 사망 당일의 假通夜, 다음 날의 本通夜, 그 다음 날의 장례식을 거행하는 3일장이 일반화되었다.

통야에 弔問 온 조문객의 일반 복장은 上下衣 모두 검은 색 예복을 입고, 손에는 염주를 들고, 검은 구두와 양말을 신는다. 이러한 차례의 조문객은 먼저 접수처에 들러 조의금³⁸⁾을 낸 다음, 고인의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고(焚香), 묵념을 하고, 목례를 한다. 그리고 자리에 돌아와 유족들과 인사를 나눈다. 이때 승려는 제단 앞에 앉아 계속 讀經을 한다. 통야 의식이 끝나면 상주와 유족들은 조문객에게 술과 음식을 권하며 주연이 베풀어진다. 요즘은 통야가 간소화 되어 대부분의 조문객이 밤샘을 하지 않고 돌아가지만, 고인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은 향불과 촛불을 피우고,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밤을 샌다. 비록 최근에 통야의 시간이나 참여자의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지만,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은 고인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향불과 촛불을 피워놓고서 不寢番을 서는 본래의 관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3. 葬禮式(告別式)

葬禮式은 通夜 다음 날 낮에, 고인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일반 조문객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장례식 시간에 맞추어 온 조문객은 이때 조의금을 낸다. 장례식은 소속 사원의 승려 주재 아래서 이루어진다. 본래 장례식은 故人の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으로서 告別式과는 구분되었다고 한다. 장례식은 승려가 중심이 되어 고인의 成佛

38) 통야나 고별식 때 유족에게 보내는 물품, 조의금을 香典(고덴) 또는 香奠이라고 한다. 길봉투에 御香典, 御香料, 御靈前 등을 써서 조의금을 내고, 그 액수는 보통 3-5천원, 친한 사이인 경우 1만원 정도라고 한다.

을 기도하는 의식으로 喪主를 비롯하여 유족이나 가까운 친척, 생전에 고인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참석한 의식이었고, 고별식은 일반 조문객이 참여해 분향하며 고인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의식이었다. 즉 장례식과 고별식은 전혀 별개의 의식으로서 전자가 고인을 저승으로 보내는 宗教의례였다면, 후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인에게 이별을 고하는 世俗의례였던 것이다.³⁹⁾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구분은 없어졌다.

통야 다음 날에 실시하는 고별식(장례식)은 현대에 들어와 葬禮 행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전 집에서 出棺하여 寺院과 같은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때 있었던 葬列(장례행렬)⁴⁰⁾이 거의 사라지고, 또 通夜 의식이 간소화 되면서 고별식(장례식)의 비중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고별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⁴¹⁾

먼저 장례식에 참여한 일동이 합장하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가족과 친지, 조문객 전원이 합장하고 묵념을 올린다. 그리고 승려의 讀經이 있고, 다음에 고인을 애도하는 弔詞 또는 弔電이 있고, 승려의 독경 소리와 함께 가족 및 친지들의 焚香⁴²⁾이 이어진다. 일본의 장례

39) 1901년(明治34) 12월 17일 나카에 초민(中江兆民, 1847-1901)의 고별식이 최초였다. 이것은 나카에(中江)가 無宗教이고 종교의례의 생략을 유언했기 때문에 세속의례인 고별식을 행한 것이다. 村上興匡, 「葬儀の變遷と先祖供養」, 『葬送のかたち』(東京: 佼成出版社, 2007), p.37.

40) 이전에는 집(喪家)에서 通夜를 하고 다음 날 出棺하여 葬祭場(장례식장)이 있는 사원이나 묘지로 떠날 때 장례행렬이 이루어졌다. 대도시에서는 타이쇼기(大正期)에 들어와 교통량이 증가하고, 도시가 확대됨에 따라 장렬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山田愼也, 「葬列 告別式」, 『葬送のかたち』(東京: 佼成出版社, 2007), p.25.

41) 노성환, 「日本葬禮の現場」, 『장례문화의 이해』(서울: 경인문화사, 2008), pp.59-62.

42) 장례식에서의 분향은 향로에 抹香이나 線香을 피우는 의식으로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다. 말향은 주로 불공을 드릴 때에 사용하는 가루 향이다. 선향은 향료 가루를 가늘

식은 불교의식에 따르고 있어서 분향의 순서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혈연적 관계의 순서에 따라 상주의 가족, 고인의 형제 자매 조카의 순으로 한다. 그리고 혈연 관계의 친지들의 분향이 끝나면 일반 조문객들의 분향이 있게 된다. 분향을 모두 마치면 승려가 퇴장하고 폐식 선언으로 장례식은 끝난다. 마지막으로 유족 대표는 의식에 참석해 준 조문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게 된다.

장례식을 마친 조문객은 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답례품을 받아 가지고 간다. 유족은 조문객들에게 조의금 즉 香典(고텐)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답례로 물품을 보낸다는 관습에 따른 것이다.⁴³⁾ 답례품에는 不淨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조문객에게 소금(淸鹽)을 함께 주어지기도 한다. 조문객은 답례품을 대신하여 점심식사를 대접받는 경우도 있다.

4. 出棺에서 埋葬까지

(1) 出棺과 화장

장례식이 끝나면 승려는 出棺의 讀經을 한다. 그리고 관을 끄집어 내어 뚜껑을 열고 먼저 유족들이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대면한다. 이때 꽃을 한 송이씩 헌화하며 관 속에 넣어준다. 이어서 가까운 친족, 이웃 그리고 조문객의 순으로 고인을 대면하고 헌화한다. 고인과의 마지막 대면이 모두 끝나면 관뚜껑을 덮고 못을 박는다. 이

고 긴 선 모양으로 만들어 풀로 굳힌 향이다.

43) 유족은 받은 조의금의 절반 또는 3분의1 정도의 물품으로 답례를 한다고 한다(香典返し). 답례품은 상품교환권, 차, 도자기, 담요 등이다.

전에는 못질을 하는 것도 그 순서가 정해졌지만 최근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특별한 순서 없이 한다고 한다.

과거 집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出棺할 때는 현관이 아닌 鬚마루(緣側)를 지나서 가고, 고인이 사용했던 밥그릇(茶碗)을 깨거나, 절구를 굴리기도 하였다. 이것은 산 사람이 死靈이나 死穢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관념에서 나온 관습들이다.⁴⁴⁾ 이러한 주술적인 의식은 시신과 사령을 집에서 내쫓기 위한 의식인데, 과거와 달리 火葬이 보편화된 현재에도 出棺 때에는 현관이 아닌 鬚마루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⁴⁵⁾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심이 여전히 주술적인 인습을 지켜오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고인이 입었던 옷을 거꾸로 흔들며 나가기도 하는데 이것은 생전에 고인이 神佛에 기원했던 소원을 풀기 위한 의식이라고 한다.

장례식 후 出棺식이 끝나면 火葬⁴⁶⁾이 일반화된 요즘은 관을 장의차에 싣고 火葬場으로 떠난다. 장의차에는 관과 함께 장의사, 유족 1, 2명이 타고, 다른 가족들은 승용차나 버스를 이용해 뒤를 따른다.

44) 산자가 죽음의 세계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며 그곳에 끌려가지 않으려는 관습으로 귀막기, 湯灌酒, 穴掘酒, 장지로 가기전 먹는 밥, 밥그릇 깨트리기, 질긴 떡 등이 있다. 이러한 관습은 현재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과는 달리 죽음을 개인 생명의 종언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新谷尙紀, 「일본의 죽음과 장송의 민속」, 『종교와 문화』14(서울: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08), p. 68.

45) 岩田重則, 『お墓の誕生』(東京: 岩波書店, 2009), p. 49.

46) 2006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화장율은 99.7%이다. 일본에서 화장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1930년대 중반이었고, 江戸時代(1603-1868)에는 화장율이 20%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메이지 정부는 1873년(明治6) 화장금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지만 2년 후 이것을 철회하였고, 1897년(明治30)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한 이후 화장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갔다. 朴鎔烈, 「일본의 화장 풍속」, 『일본학보』(서울: 한국일본학회, 2003). 참고로 한국의 화장율은 2010년에 65%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의차를 따라 화장장에 가는 사람은 유족과 친지, 그리고 고인과 특별히 가깝게 지낸 사람이다. 그러므로 일반 조문객은 고별식과 출판식의 참여로 장례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마치게 된다. 관이 화장장에 도착하면 그곳에 마련된 祭壇이나 火口 앞에 관을 놓고 승려나 관리인의 주관 아래 간단한 분향의식을 올리며 고별인사를 한다. 이 의식이 끝나면 관리인에 의해 관은 화구로 옮겨져 불을 붙이게 된다.

요즘과 같이 土葬이 아닌 火葬이 일반화된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시신을 놓고 장례식(고별식)을 행한 후 出棺하여 화장을 하고 納骨을 하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출판하여 화장을 하고 다시 돌아와 遺骨을 앞에 두고 장례식을 행한 다음 납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장례법이 병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따른 장례법의 차이이기보다는 장례절차의 간소화와 연관된 문제인 듯하다.⁴⁷⁾ 후자의 형태는 시신이 든 관을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한 다음, 장례를 치를 곳으로 다시 돌아와 의식을 행한 후에 묘지로 가 납골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시신이 든 棺과 유골이 든 遺骨函이 밖으로 옮겨지는 2회의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장례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입장에서는 1회의 출판으로 끝나는 전자의 형태를 선호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전문 장례식장(葬祭場)을 이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시신을 두고 장례식을 행한 후에 화장을 하여 納骨하는 장례법이 보편화되리라고 본다.

47) 두 유형의 장례법을 노성환은 지역 차에 따른 것으로 보았지만 그보다는 장례절차를 간소화 하고 시간을 절약하고자 한 입장에서는 장례식(고별식)→출판→화장→납골의 장례법을 따랐을 것으로 보고 싶다. 노성환, 「日本葬禮의 現場」, 『장례문화의 이해』(서울: 경인문화사, 2008), p.66. 참조

(2) 遺骨 수습

화장장⁴⁸⁾에서 화장이 모두 끝나게 되면 유족들은 拾骨하는 장소에 모여 고인의 遺骨을 수습하게 된다. 유골 수습의 방법은 지역과 불교 종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도쿄(東京) 중심의 동북부 지방에서는 불에 탄 유골을 모두 뼈 항아리에 담아가지만, 남서부 지방에서는 신체의 주요 부분의 뼈만을 골라 담아가고 나머지 뼈는 화장장에 그대로 두고 간다. 그래서 남서부 지방의 화장장은 유족들이 남기고 간 유골을 처리하는 殘灰 처리소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다. 그 잔회 처리소에는 참배가 가능하도록 분향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사정상 유골을 수습해 가지 않은 유족들이 이곳에서 추모의 예를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⁴⁹⁾

화장에서의 공통점을 든다면 먼저 불에 탄 유골을 전부 모아 유족들이 그것을 그대로 수습한다. 화장 후에 뼈를 가루로 만들어 처리하는 우리의 경우와 전혀 다른 풍습이다. 뼈를 수습할 때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차례로 나무젓가락으로 뼈를 집어서 遺骨函(骨壺)에 담는다. 그리고 유골은 두 개의 유골함에 담는 경우가 많다. 신체 주요 부분의 뼈(다리, 팔, 허리, 가슴, 두개골)와 그렇지 않은 뼈를 구분해서 담기 위한 것이다. 특히 목뼈를 유난히 소중하게 다루어 한 개의 뼈 항아리에는 목뼈만을 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목뼈를 喉佛(노도보토케, のどぼとけ; 목에 있는 부처)⁵⁰⁾이라고 하여 목숨이 인

48) 일본에서는 화장장이라는 명칭 대신 齋場, 葬祭場, 苑, 園, 齋苑, 齋園 등을 쓰고 있다.

49) 박태호, 『세계묘지 문화기행』(서울: 서해문집, 2005), pp.268-269.

50) 목의 중간에 있는 갑상연골의 돌출 부분을 말한다.

간의 목에 있다는 관념에서 생긴 것으로 추측한다.⁵¹⁾

(3) 가족 納骨墓와 納骨堂

화장을 마친 후 유골은 遺骨函에 담겨서 고인의 집안이 소속된 寺院의 부속묘지나 공동묘지(公園墓地, 靈園墓地)⁵²⁾에 안치하게 된다. 이때에도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을 바로 묘지에 묻는가 하면, 유골함을 집의 佛壇에 49일간 모시고 있다가 49齋 공양 후에 묘에 안치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는 두 개의 유골함 중 하나는 화장 후 바로 납골묘에 안치하고, 다른 유골함 하나는 49재를 치른 후 같은 묘에 안치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지 불교의 영혼관에 따른 49제가 납골에 기준점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유골을 무덤에 안치할 때는 승려가 讀經을 하며 간단한 제를 올리고 喪主가 땅을 파고 유골함을 묻게 된다. 그리고 주위에 꽃을 놓고 분향, 합장하며 고인과의 작별을 고한다.

일본의 묘는 개인묘가 매우 드물고, 代를 이어서 가족의 유골을 공동으로 안치하는 대개 가족 納骨墓로서 적게 2~3명 많게는 8명의 유골함을 함께 묻는다.⁵³⁾ 묘지의 크기는 보통 4~5m²(1.2~1.5평)로

2평을 넘지 않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4m²(1.2평)를 적정한 묘지 크기로 권장하고 있지만, 이보다 작게 묘지를 쓰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것은 地價 상승에 의한 묘지난과 정부가 묘지 신설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⁴⁾ 일본에서의 묘지 구입은 고인의 뒤를 잇는 계승자가 대대로 묘 관리비를 지불하며 영구히 사용하는 ‘永代使用權’을 취득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묘를 계승해 갈 후손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묘지 구입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묘를 계승해 갈 계승자가 없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繼承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묘’도 등장하게 되었다. 즉 생전에 묘지를 구입하여 한 번에 관리비(永代供養料金)를 지불하고 타인에게 관리와 공양을 위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묘를 永代供養墓, 合葬墓, 合祀墓, 總墓, 脫계승묘 등으로 부르고 있다.⁵⁵⁾

전통적인 일본 묘의 형태는 3층석탑으로 된 墓石과 그 아래에 가족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묘석 또는 석탑은 近世 이후 장의불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조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비석에는 ‘○○家之墓’ 혹은 ‘○○家先祖代之墓’를 새기게 되고,⁵⁶⁾ 그것이 개인묘인 경우는 ‘○○之墓’라고

51) 喉佛(노도보토크)를 특별히 소중히 다루게 된 것이 유골함을 도자기 제품으로 쓰기 시작한 이후에 생긴 특이한 현상이라고도 한다. 노성환, 「日本葬禮의 現場」, 『장례문화의 이해』(서울: 경인문화사, 2008), pp.64-65. ; 朴鎔烈, 「일본의 화장 풍속」, 『일본학보』(서울: 한국일본학회, 2003), p.649.

52) 일본의 영원묘지(공원묘지)는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公營묘지와 민간인 운영의 民營묘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영묘지에는 사원묘지, 종교법인 경영묘지, 공익법인 경영묘지, 영리법인 경영묘지 등이 있다.

53) 납골묘의 시설은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묘지당 비석 1개, 비석 높이 3미터, 테두리 1미터 이하, 큰 나무를 심는 것을 금하고 있다.

54) 도쿄(東京) 인근의 경우 묘지가격은 1m²당 300만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5) 이누우에 하루요(井上治代) 저, 이성한·이미에 옮김, 『현대 일본의 삶과 죽음』(대구: 중문출판사, 2004), pp.131-138. 이누우에(井上)는 앞 저서에서 ‘영대공양묘’보다는 ‘계승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묘’ ‘계승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묘’ ‘탈계승묘’가 더 적합한 용어라고 주장한다.

56) 사이타마현(埼玉縣) 리자시의 경우 묘의 비석은 덴포기(天保期, 1830-1843) 이후에 집안의 선조를 중시하는 의식이 강해지기 시작해 메이지 30년대 이후로 ‘○○家之墓’가 주류를 이루었다. 新谷尙紀, 「일본의 죽음과 장송의 민속」, 『종교와 문화』14(서울: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08), p.64.

새긴다.⁵⁷⁾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일반화된 형태의 묘는 角柱型의 비석(묘석) 아래에 화장한 유골을 땅 밑의 가로우토(カロウト)라고 하는 납골공간(石室)에 보관하는 납골묘(가로우토식 납골묘)이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묘지난과 납골묘의 관리상 문제 때문에 지상에 納骨堂(奉安堂)⁵⁸⁾을 세우고 그 안의 納骨壇에 유골함을 안치하는 형태의 묘도 증가하고 있다.

납골당은 무엇보다도 그 관리 면에서 편리성을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납골묘가 주로 고인의 유족들에 의해 관리되는데 비해, 납골당은 하나의 큰 공간에 많은 유골함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핵가족화와 고령화 사회에서, 그리고 離農으로 인한 過疎化 지역에서는 납골묘보다는 선호하고 있는 납골시설로 환영받고 있는 것이다

IV. 祭禮에 의한 조상공양

자손의 선조공양 의례는 앞장에서 상세히 본 바와 같이 死後에 거

57) 묘의 碑石(墓石, 石塔)은 근세 시기에 생겨난 것으로서 개인의 불교식 戒名 ‘○○居士’ ‘○○大姉’을 비석에 새겼지만, 근세 후기부터 ‘先祖代之墓’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근·현대 사회에 보급되었다. 이것을 뒷받침 한 것이 화장의 보급이었다. 현재 거의 획일화된 가로우토(カロウト)식 납골묘는 1960-70년대 이후 행정력에 힘입은 바 크다. 岩田重則, 『お墓の誕生』(東京: 岩波書店, 2009), pp.70-71. ; 이누우에 하루요(井上治代) 저, 이성환·이미에 옮김, 『현대 일본인의 삶과 죽음』(대구: 중문출판사, 2004), pp.81-82.

58) 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안치하는 장소인 納骨堂 대신 한국에서는 奉安堂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행되는 장례로 시작한다. 그리고 장례를 마친 후에는 49재, 100일재, 1주기(만1년), 3회기(만2년), 7회기(만6년), 13회기(만12년), 17회기(만16년), 그리고 마지막 제례에 해당하는 33회기 혹은 50회기(도무라이아게, 弔いあげ)를 행하게 된다. 후손이 이러한 제례를 모두 올려야 고인의 死靈이 정화되어 祖靈(조상신)으로 승화된다는 믿음 때문이다(祖靈信仰). 승려의 주재 아래 고인의 명복을 비는(追善供養) 이러한 불교식 祭禮를 法要 또는 法事라고 한다.

1. 中陰법요, 100日齋

中陰이란 고인이 사망한 후 49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服喪 또는 喪中 기간이라고 하여 상복을 입는 기간이다. 특히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처음 7일까지를 忌中이라고 한다. 이 중음 기간(49일) 중에 매번 7일 간격으로 7번의 공양을 올린다. 즉 初七日(사망일로부터 첫 7일), 二七日(14일), 三七日(21일), 四七日(28일), 五七日(35일), 六七日(42일), 七七日(49일) 법요를 올린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中陰神으로 떠돌며 생전에 지은 業에 따라 7일마다 7번에 걸쳐 冥府十王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했다.⁵⁹⁾ 그래서 사망한 날로부터 7일마다 한 번씩 7번에 걸쳐서 齋를 올리게 된 것이고, 마지막 7번째의 재를 49재⁶⁰⁾라고 하였다. 死後 49

59) 죽은 자가 49일 동안 7일씩 차례대로 심판을 받는 冥府十王은 秦廣大王, 初江대왕, 宋帝대왕, 五官대왕, 閻羅대왕, 變成대왕, 泰山대왕, 平等대왕, 都市대왕, 轉輪대왕 등이다. 열라대왕이 10왕 중 우두머리이다.

60) 49齋는 地藏經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지장경은 죄를 짓고 고통 받는 중생들을 평등하게 해탈하고자 한 地藏菩薩의 誓願을 말한 경전으로 49재는 “만일 죄인이 이 과보를

일 동안 죽은 영혼은 당도할 곳이 정해지지 않아 우주에 떠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공양을 해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이 중음 기간(49일)에 후손들의 공양을 받은 영혼은 地獄, 餓鬼, 畜生, 阿修羅, 人間, 天界의 6度 한 곳에서 환생한다. 따라서 일본의 선조공양 제례인 중음법요는 불교가 탄생한 인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불교의 영혼관을 따라 49일 동안 死者의 영혼을 위해 공양을 올리면 사자는 보다 좋은 곳에 환생한다는 믿음에서 이 중음기간에 절의 승려를 모시고 讀經, 供養의 법회를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음법요가 간소화 되어 初칠일, 五칠일, 七칠일의 법요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초칠일의 법요를 死後 7일이 아닌 出棺 전에 치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본래 중음 법요가 갖고 있는 의미는 사라지고 시간에 쫓겨 그것이 형식화되어 버린 것이다.

喪中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와는 달리 생활하여 사교적인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비린 음식을 삼가했다. 또 正月에도 집에 門松(카도마츠)⁶¹⁾을 세우지 않고, 鏡餅(가가미모치)⁶²⁾와 같은 떡을 만들기 위해 떡을 치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상중에 행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습을 요즘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받으면 천백세 중에 헤어날 길이 없으니 마땅히 지극한 정성으로 49齋를 베풀어 공양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나 살아 있는 권속들도 함께 이익을 얻으리라”는 구절에 근거하고 있다.

61) 正月이 되면 가정집의 현관이나 문 앞의 좌우에 소나무 1대씩을 세우는 연중행사다. 12월 말쯤에 세워 1주일 정도 세워둔다고 한다. 소나무에 신이 머문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행사가 생긴 것이다.

62) 거울 모양의 둥그런 떡으로 큰 것과 작은 것을 포개 놓는다. 떡을 이렇게 만들면 음양의 조화로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다.

사후 49일 째에 올리는 七七日 법요를 脫喪 또는 이미아케(忌明け)라고 한다. 칠칠일 법요를 올리며 喪中에 服하는 기간이 끝나는 것이다. 곧 상중에 평소와 다른 생활을 하던 가족이 보통의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됨을 의미한다. 화장한 후 유골함을 집 안의 佛壇에 안치한 가족은 이때에 유골함을 納骨墓에 묻게 된다. 하지만 유골함을 장례가 끝난 직후에 묘지에 안치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49재 탈상 때는 장례 때의 칠을 하지 않은 소박한 위패와는 달리 보통 옷칠을 한 위패(本位牌)⁶³⁾로 바꾸고, 이후에는 이것을 집의 불단에 모시고 여기에 공양을 올리게 된다.

100日齋는 사후 100일 만에 올리는 법요로서 49재에 준하여 행한다. 100일재는 다음에서 보게 될 1주기(小祥), 3주기(만2년,大祥)와 함께 중국에서 행해진 제례가 일본에 전해진 것이다. 사람이 죽은 지 49일째가 되어도 새로운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승을 방황하는 경우에 100일이 되어서야 환생하기도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年忌法要

年忌法要是 年 단위로 돌아오는 고인의 忌日에 명복을 비는 법요를 말한다. 즉 死後 만 1년 이후에 지내는 법요로 週忌, 回忌라고도

63) 위패는 중세 카마쿠라 시대에 중국에서 전한 것으로서 이것이 서민에게 보급된 것은 江戸時代부터라고 한다. 위패는 중국불교가 인도불교와는 달리 유교와 습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위패는 本家만이 아니라 분가한 유족들을 위해 위패를 만들어 공양하는 위패 나누기(位牌分け)도 있다고 한다.

한다. 만1년이 되는 1주기(만1년) 그리고, 3회기(만2년), 7회기(만6년), 13회기(만12년), 17회기, 23회기, 27회기, 33회기가 있다. 이것 외에도 불교 종파에 따라서는 50회기, 100회기가 있기도 한다. 여기서 1주기와 3회기는 곧 小祥과 大祥으로 중국불교에서 행해지던 것이 일본에 전해진 것이고, 7회기 이후는 일본불교에서 시작된 것이다.⁶⁴⁾

33회기를 마치면 도무라이아게(弔いあげ)라고 하여 한 故人에 대한 공양의례는 종료된다.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이때 묘지에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집의 불단에 안치한 위패를 집안의 제사를 모시는 절(檀那寺)에 모시기도 한다. 또는 고인의 위패를 강에 흘려보내거나 불에 태우기도 한다. 33회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조상 숭배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공양(제사)을 받아 온 死靈은 33회기를 맞으며 祖靈(조상신)으로 격상되며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전체의 조상신으로 집단화 된다. 따라서 장례 후 初七日의 법요에서부터 33회기까지의 모든 의례는 祖靈化 과정의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사령에서 조령으로 변화된다는 관념은 일본적인 신앙의 기본 구조가 되고, 여기에 따르는 중음법요와 연기법요는 불교의 영향에 따른 형식화된 의례였다.⁶⁵⁾

사후 33년이 지난 死者가 代代的 조상신(祖先様)으로 일괄되어 매년 正月이나, 오본(お盆), 히강(彼岸) 때 후손을 방문하여 공양을

받게 된다. 이렇게 후손들의 조상에 대한 공양의례는 葬禮, 그리고 중음법요와 연기법요를 거치며 연중행사 때의 제례로 계속 이어져 간다.

3. 오봉(お盆)과 히강(彼岸)의 공양의례

1) 오봉(お盆)의 조상공양

일본에서는 음력 7월 15일 또는 양력 8월 15일에 조상의 영혼을 공양하는 시기를 오봉(お盆)이라고한다. 오봉은 불교행사인 우란분회(盂蘭盆會)⁶⁶⁾가 일본의 조상신앙과 결합되어 나타난 풍습이다. 불교의 우란분회는『盂蘭盆經』의 설화에서 유래한다. 경전에 의하면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 하나인 目連尊者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 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하여 스승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때 목련은 석가모니가 '7월 15일에 공양하라'고 한 가르침에 따라 이날 승려들과 함께 모여 참회하고, 五味 百果를 갖추어 쏘 안에 넣어 시방대덕(十方大德)을 공양하자, 마침내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구원을 받아 極樂淨土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僧家에서는 음력 7월 15일을 百中이라고 하여 조상의 명복을 비는 의례를 행하며 이날을 亡魂日이라고 하기도 한다.

불교의 우란분회에서 유래한 일본의 오봉은 그 기간이 대개 8월 13일부터 시작하여 16일까지 4일간이다. 일본인은 오봉을 조상의

64) 중국에서는 11세기에 49제, 100일제, 소상(1주기), 대상(3회기) 등의 법요 형식이 완성되고, 일본에서는 33회기까지의 법요가 무로마치 시대(1336-1573) 무렵에는 이행되었던 것으로 본다. 무로마치 시대는 곧 조상제례와 민중불교가 결합한 시기였다.

65) 崔吉城, 『한국의 조상숭배』(서울: 예전사, 1993), pp.254-255.

66) 음력 7월 15일에 조상의 혼령이 고통스러운 사후세계로부터 구제되기를 기원하는 불교 행사이다. 이 행사가 있는 7월 15일을 百仲이라고 한다.

영혼이 1년에 한 번씩 이승을 찾아오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조상에 게 제사를 올리고, 성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13일에 精靈맞이(迎え火, 무카에비)를 하여 14, 15일에는 본다나(盆棚)라는 임시 선반을 설치해 佛壇에 두었던 位牌를 놓고 과일, 국수, 과자 등의 供物을 올려놓고 제사를 올린다. 이때 승려를 모시고 讀經을 하며 공양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省墓(墓参り, 하카마이리)에는 묘 주위를 청소하고, 간단한 음식과 꽃을 올리고 향을 피우며 예를 올리게 된다. 또한 이승에 돌아온 조상의 영혼을 공양하기 위하여 유카타(浴衣)를 입고 봉오도리(盆踊り)라는 민속춤을 추는 것도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본다나(盆棚)를 치우고, 정령맞이 때와 같이 집에 불을 밝히고 조상의 영혼을 보낸다(오쿠리비, 送り火).⁶⁷⁾

이처럼 후손을 찾아온 조상신에게 공양을 올리는 기간이었던 오봉이, 현대 일본인에게는 여름철 휴가기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오봉은 일본에서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이 시기에 3~7일 정도의 여름휴가(오봉야스미, お盆休み)를 내어 연휴를 즐기거나 고향을 찾아 흠어져 지내던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오봉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봉오도리는 현재 한여름의 무더위를 잠시 잊으며 즐기자는 축제의 놀이로 변모되었고,⁶⁸⁾ 또 각 지방에서는 이것을 관광상품화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적극

67) 공양 때 바쳤던 여러 가지 공물을 강이나 바다에 띄워 보내거나(精靈流し), 燈籠을 만들어 강에 띄워 보내는 행사(燈籠流し)를 한다. 이것은 조상의 정령이 燈을 타고 저승으로 돌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68) 한국일어일문학회, 『게다도 짝이 있다』(서울: 글로세움, 2010), P.185.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봉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고, 일본인의 생활 속에서 여름철의 휴가기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2) 히강(彼岸)의 조상공양

히강(彼岸)은 3월의 춘분 날(3월 23일경) 전후의 약 3일을 합한 일주일을 '봄의 히강'이라 하고, 9월의 추분 날(9월 23일경) 전후의 약 3일을 합한 일주일을 '가을의 히강'이라고 한다. 彼岸⁶⁹⁾은 본래 불교 용어로 現世를 가리키는 此岸의 상대어로 저 세상을 가리킨다. 진리를 깨달아 도달 수 있는 이상적인 경지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교사상에 근거해 일본불교에서는 헤이안시대(平安時代) 무렵부터 깨달음의 세계인 피안에 도달하기 위해 봄, 가을에 법회(彼岸會)를 열었다고 한다. 그리고 淨土思想이 보급되면서 춘분일과 추분일에 염불을 외면 서방의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교신앙에 일본 고유의 조상 숭배 신앙이 결합하여 연중행사인 히강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히강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영혼을 공양하기 위해 성묘를 가고, 또 절에서는 彼岸會를 열어 讀經과 說法을 하며 부처님을 공양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히강 기간인 春分日과 秋分日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두 공휴일 제정의 취지는 매우

69) 到彼岸의 준말로 解脫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도피안을 위해 六波羅蜜 혹은 十波羅蜜을 강조한다.

상이하다. 둘 다 1948년에 공휴일로 제정되었지만, 춘분일은 자연을 기리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날로, 그리고 추분일은 조상을 공양하고 죽은 사람을 기리는 날로 하고 있다. 실제 추분일만이 히가의 본 의미에 맞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상공양을 취지로 하여 추분일이 국가의 경축일로 제정된 사실에서 일본의 조상숭배 신앙이 아직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V. 결론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일본에서는 靈肉관념의 민간신앙에 기반을 둔 조상숭배 의식이 이에(家) 의식에 의해서 한층 강화되고, 그것이 가마쿠라 시대에 출현한 민중불교와 결합하여 불교식의 장례문화가 형성되었다. 이것이 에도시대의 寺講, 檀家制度에 의해 확고히 정착되었고, 이에 따라 葬儀佛敎도 완성될 수 있었다. 일본의 전통 장례 문화는 민간신앙과 불교가 습합된 형태로서 죽은 사람의 死靈을 祖靈으로 승화시켜가는 과정이었고, 여기에 후손들에 의한 불교의례가 주기적으로 행해졌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전통 장례문화는 민간신앙이 형식적인 틀을 제공하였다면, 불교는 그 틀 속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의례절차를 채워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령이 조령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먼저 불교식 葬禮가 거행되고, 이후에 불교식 祭禮가 그 뒤를 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전통적인 장례문화는 現代에 들어와 다음과 같은 큰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먼저, 종교적 색채가 약화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장례에서 종교의례였던 葬禮式과 세속의례였던 告別式의 구분이 사라지고, 이러한 장례식(고별식)이 장례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고인의 死後出家를 의미하는 戒名 관습에 대해 최근 많은 비판과 함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⁷⁰⁾ 그런가 하면 제례로서 死後 7 일째에 행하는 초7일 법요가 火葬 때나 出棺 전에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그것이 갖는 종교적 의미는 사라지고 있다.

다음으로, 여러 형식과 절차가 간소화 되고 있다. 장례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通夜가 밤샘이 아닌 2~3시간으로 끝나는 경우(半通夜)가 많고 不侵番을 서는 사람도 유족과 가까운 친족으로 매우 축소되었다. 또한 많은 인력과 葬具가 동원되는 葬列이 도시에서부터 거의 사라졌고 장례는 집이나 사원보다는 전문 장례식장에서 거행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제례로서 中陰 기간(49일) 중에 시행되는 7번의 법요가 3번으로 축소되고, 상복을 입고 근신하는 관습도 사라졌다. 또 正月에 조상의 영혼에 공양을 올리던 관습은 거의 사라지고 그것이 오봉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葬法이 이전 土葬에서 火葬으로 일반화되면서 兩墓制와 같은 묘제는 자취를 감추었고, 가족 納骨墓의 형태로 획일화되었다. 최근에는 納骨堂도 선호되는 추세이다. 특히 사회변화에 따라 ‘계승을 전제하지 않는 묘’의 출현은 묘지에 있어서 엄청난 내적 변화라 할 수 있고, 향후 더욱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70) 승려의 讀經이나 戒名의 비용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아직도 일본에서는 불교식의 장례나 조상 제사의 관습이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불교와 무관해 보이는 여러 형태의 장례가 등장하고 있다. 戒名과 승려에게 지불하는 보시금액에 대한 불만과 반발에서⁷¹⁾ 나온 無宗教葬, 장례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화장하는 直葬도 있다. 이외에도 전통적인 장례문화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족들만 모여서 지내는 密葬,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는 경우 生前契約에 의한 장례, 심지어 살아있을 때 장례를 치르는 生前葬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화장에 의한 葬墓문화는 납골묘나 납골당에 머물지 않고, 山骨과 樹木葬⁷²⁾까지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 전문 장례식장의 이용율이 증가하며 장례의 産業化⁷³⁾가 가속화되어 현대일본 장례문화의 변화 정도는 더욱 심화되리라고 예상된다.

71) 계명과 독경으로 승려에게 지불하는 사례금이 보통 60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일본소비자협회에 따르면 2007년 일본인의 평균 장례비용은 230만원이고, 묘지비용은 300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72) 생태학(ecology) 사상에 근거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장례법(自然葬)으로 산골은 화장한 후 유골을 바다나 산에 뿌리는 것이고, 수목장은 유골을 나무 밑에 묻는 장례법이다.

73) 최근 일본에서 장례업은 성장산업으로 평가되어 기존의 장례업자, 상조회를 비롯해 농협, 생활협동조합, 호텔, 전철회사 등이 참여하여 6,500개 이상의 회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 야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장례업의 시장규모는 2010년 1조 8천억엔대이고, 2015년 2조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시덕, 「일본의 화장, 불교식 장례」, 『불교학연구』16(서울: 불교학연구회, 2007)
- 김후련, 「민속신앙과 불교가 습합된 일본의 장례문화」, 『세계의 장례문화』(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 ——, 「다신교 풍토에서 성장한 일본의 민간신앙」, 『세계의 민간신앙』(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 노성환, 「日本葬禮의 現場」, 『장례문화의 이해』(서울: 경인문화사, 2008)
- 朴奎泰, 「일본근세의 종교와 국가권력 -도쿠가와와 막부의 사원법도를 중심으로-」, 『儒敎文化研究』4(서울: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원, 2002)
- ——, 「일본의 종교와 종교정책」, 『종교연구』46(서울: 한국종교학회, 2007)
- 朴銓烈, 「일본의 화장 풍속」, 『일본학보』(서울: 한국일본학회, 2003)
- 박태호, 『세계묘지 문화기행』(서울: 서해문집, 2005)
- 송천호·장만석, 『일본의 장례문화』(서울: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5)
- 이찬수, 『일본정신』(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9)
- 최길성, 「일본장례의 비교민속학적 고찰」, 『비교민속학』5(서울: 비교민속학회, 1989)
- ——, 『한국의 조상숭배』(서울: 예전사, 1993)
- ——, 「체험적 일본 문화론」, 『일본 문화의 이해』(서울: 시사일본어사, 2003)
- 許南麟, 「일본 근세초기에 있어서의 반기독교 정책과 寺清制度의 성립」,

『日本歴史研究』(서울: 日本歴史研究會, 2000)

- ——, 「祈禱와 葬禮式 - 日本 佛教文化의 두 중심축-」, 『日本思想』2(서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2)
- 한국일어일문학회, 『게다도 짝이 있다』(서울: 글로세움, 2010)
- 마쓰오 겐지 지음, 김호성 옮김, 『인물로 보는 불교사』(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5)
- 아마 도시마로(阿滿利磨) 지·정형 옮김, 『일본인은 왜 종교가 없다고 하는가』(서울: 예문서원, 2001)
- 아이쿠라 하루타케 지음, 허인순 외 옮김, 『일본의 연중행사와 관습 120가지 이야기』(서울: 어문학사, 2010)
- 이노우에 하루요(井上治代) 지, 이성환·이미애 옮김, 『현대 일본인의 삶과 죽음』(대구: 중문출판사, 2004)
- 高村龍平, 「일본의 장묘문화 - 그 다양성과 역사성-」, 『耽羅文化』22(제주: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2002)
- 新谷尚紀, 「일본의 죽음과 장송의 민속」, 『종교와 문화』14(서울: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08)
- 岩田重則, 『お墓の誕生』(東京: 岩波書店, 2009)
- 圭室諦成, 『葬式佛教』(東京: 大法輪閣, 1964)
- 圭室文雄, 『江戸幕府の宗教統制』(東京: 論評社, 1971)
- ——, 『葬式と檀家』(東京: 吉川弘文館, 1999)
- 村上興匡, 「葬儀의 變遷と先祖供養」, 『葬送のかたち』(東京: 佼成出版社, 2007)
- 山田慎也, 「葬列 告別式」, 『葬送のかたち』(東京: 佼成出版社, 2007)
- 孝本貢, 「現代人の祖靈觀と先祖供養」, 『葬送のかたち』(東京: 佼成出版

社, 2007)

- 柳田國男, 「先祖の話」, 『柳田國男集』13(東京: 筑摩書房, 1990)
- 五來重, 『葬と供養』(東京: 東方出版, 1992)
- 正しい研究會, 『先祖供養ノート』(東京: たちばな出版, 2008)
- 村上重良, 『日本の宗教: 日本史・倫理社會の理解に』(東京: 岩波書店, 1981)

The traditional funeral culture of Japan by Buddhism and its changing aspects

Yoon, Ki-yeop

Researcher,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looked into the backgrounds of the traditional funeral culture which has formed in Japan, its contents and transformation. This thesis treated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dure and contents of funeral and ancestral rituals which have been performed in Japan. The traditional funeral culture of Japan was formed with an ancestor worship peculiar to Japan and the popular Buddhism of the Middle Ages, and took root through the danka(檀家) system. In this process funeral Buddhism made its appearance in Japan.

The traditional funeral culture of Japan was divided into funeral ceremonies and ancestral rituals, and these are examined in this paper. Funeral ceremonies and ancestral rituals of Buddhism are ceremonies sublimating ghosts into ancestor spirits. Funeral ceremonies are rituals performed from dying to the storage of bones store, and ancestral

rituals mean the Buddhist service from the 7th day to the 33th anniversary of ancestors' death praying for souls and annual events such as Obong(お盆), Higang(彼岸). Though the traditional funeral culture is still maintained in Japan, many internal changes have happened accompanied social ones. First of all, changes include that the Buddhist influence over ceremonies is being weakened, and simplified. Accordingly as cremation is generalized, a type of tomb is being conformed to the charnel house for family. Recently, many types of funerals, which are not related to Buddhist funerals, are appearing; for example a direct cremation, an irreligious funeral, natural burials, and so on therefore it is clear that many aspects have dramatically changed.

Key Words

a ghost, ancestors worship, popular Buddhism, ie(家),
funeral Buddhism, cremation, funeral ceremonies, ancestral rituals

✎ 투고일자 2011.3.25 | 심사일자 2011.4.10 | 게재확정일자 2011.4.13